

## DU-도전학기제 결과보고서

<b>성명</b>		<b>학번</b>	
<b>단과대학</b>		<b>학과(전공)</b>	
<b>도전학기 과제명</b>	<b>(한글)클라시카 인문지리 탐구</b> <b>(영문)clásica human geographic exploration</b>		
<b>지도교수 의견</b>	<클라시카 인문지리 탐구>(장서영)는 대구대학교 균형교양 ‘클라시카 플라톤 국가’ 인문학의 내용을 분석하고 교과에서 만난 텍스트의 지리를 탐방하여 ‘인문 + 지리’라는 융합 텍스트를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것이 도전과제였다. 도전 학생은 2017년 겨울 계절학기를 도전학기제로 선택했지만 과제수행은 정상학기 9월부터 시작해서 3-4회 이상 지도교수의 의견을 듣고 성실히 과제에 반영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도전 학생은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스 현장을 탐방하여 인문과 지리를 접목한 도서개발을 최종결과물로 제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b>전공 인정 여부에 대한 학과장 의견</b>			

### 1. 도전 과제의 목표

서양의 고전들을 읽고 스스로 해석해보고 팀원들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하고 바쁜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숙고하게끔 하는 의미 있는 인문지리 책을 만들자!

이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숙제로 풀고자 한다.

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인류가 쓴 최고의 교육학이라고 말하는 플라톤의 『국가』를 꼼꼼히 읽고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한다.

이 목표에서 **인문 + 지리 융합**을 위한 그리스 현장으로 **아테네, 델피, 피레우스, 스파르타**를 방문하였다.

아래에 각각 대표 사진들이 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찍은 대표사진이다. (왼쪽)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에렉테시온 신전이다.



델피에서 찍은 대표사진이다. (왼쪽)델피 성역 중 아폴론의 신전에서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 신성한 길이다.



피레우스에서 찍은 대표사진이다. 피레우스 항구에서의 사진이다.



스파르타에서 찍은 대표사진이다. (왼쪽) 스파르타 안에 있는 또 다른 극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 스파르타 안에는 아테네와 다른 고대 아고라가 또 있었다.



② 이전 이해를 기초로 하여 <클라시카 문학>, <클라시카 역사>, <클라시카 철학>의 인문학적 서사와 이 서사와 연결된 지리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압권인 책을 출판한다.

계속해서 노력적으로 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노력은 발칙 내에 끝내도록 출판사 편집자님과 의견을 달았다.

③ 이런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클라시카 교양학>의 이미지를 높여 전국적 브랜드 확산하는 동시에 우리 대학의 지역적 이미지를 넘어 세계화하는 밑동이 되게 한다.

## 2. 도전 과제 내용

### ◆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책 3권을 선정

1. 호메로스 : 『일리아스 / 오디세이아』
2. 헤로도토스 : 『역사』
3. 플라톤 : 『국가』

#### <책의 큰 그림>

세 가지 책을 읽고 저자가 책을 쓴 목적, 그 배경을 파악하고 현실에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여 글을 쓴다. 또한 현대 사람들의 바쁜 생활에도 읽을 수 있게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플라톤 책을 잘 요약하고 핵심만 뽑아내서 작성한다. 또한 한층 더(유럽 그리스)에서 책은 아름다운 유럽 그리스의 사건들을 많이 실을 예정이어서 딱딱한 글씨로 눈이 피곤한 것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이다.

#### <방법>

- 도전하기 세 명으로 팀을 하고 클라시카를 통해 만들어진 독서회와 연동하여 텍스트 읽기와 분석을 진행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잘 이루어졌다. 독서회 학우들이 자신이 배운 클라시카 수업 내용을 나열해 알려주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플라톤의 국가제정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헤로도토스 역사에서의 행복은 "자유"라는 행복이고 플라톤 국가에서의 행복은 "올바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었다.

- 매주 12시간을 내어 처음엔 텍스트 읽기를 위주로 한 다음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한층 더(유럽 그리스)을 하여 텍스트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② 사람들이 한 눈에 잘 볼 수 있게 책의 인용을 소개, 각 책의 유명한 말, 핵심 키워드 판도 등을 선정

③ 한 층 더(유럽)는 세 책에서 중심으로 나왔던 지리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어 여행 일정을 잡고 거기서 썼던 사건을 토대로 지적감 문제 없이 책에 넣을 것이다.

아래서부의 최종 그리스 여행계획이다. 유사한 도전 과제를 하는 김예빈 학생과 팀원 부분은 같다.

1. 일정표

	1/7	1/8	1/9	1/10	1/11	1/12	1/13
8 가 지 주 제	I<고전에 대한 얘기 나누기>	II<그리스 문화, 왜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에 왔는지에 대한 얘기>	III<인문4권의 책 중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인물> IV<인문4권의 책 중에서 꼭 하고 싶은 사건>	V<모험에 대한 얘기>	VI<여행에 대한 얘기>	VII<그리스 고전에 대한 fiction&non_fiction에 대한 얘기>	VIII<낭만에 대한 얘기>

1/7 일	1/8 월	1/9 화	1/10 수	1/11 목	1/12 금	1/13 토	1/14 일	1/15 월
- 23 : 20 인천 출발	- 09 : 00 아테네 도착  - 10 : 30 공항 4-5번 게이트에서 신타그마로 가는 x95 탑. m2(메트로 2호선)타고 오모니아 역으로, 숙소 도착.  - 12 : 00 오모니아 광장 근처에서 밥 먹기  - 1 : 00 국립 고고학 박물관 방문  - 5 : 00 오모니아 광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	- 7 : 00 기상 및 아크로 폴리스로 출발  - 8 : 00 아크로 폴리스 입장  - 12 : 00 점심식사, 제우스 신전  - 2 : 00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 3 : 00 근처 카페, 옷 본 곳 한번 더 들기.  - 5 : 00 저녁식사  - 6 : 00 숙소 귀가	- 7 : 00 체크아웃  - 7 : 30 델피로 출발  - 1 : 30 아테네 출발  - 4 : 30 피레우스로 가기  - 5 : 30 숙소 도착 및 짐 풀기.	- 8 : 00 피레우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 가기  - 12 : 00 체크아웃 및 오모니아 역으로 감.  - 1 : 15 스파르타로 가는 버스타기  - 4 : 45 스파르타 도착. 짐 풀기. 저녁식사.	- 9 : 00 기상 및 아침식사  - 10 : 00 레오다니스 동상 - 스파르타 아고라 광장 - 아르테미스 성역  - 1 : 00 점심식사  - 2 : 00 스파르타 국립 박물관 관람  - 5 : 00 숙소 귀가 및 저녁식사	- 8 : 00 체크아웃.  - 8 : 30 아테네로 출발.  - 12 : 00 아테네 도착.  - 12 : 30 숙소 도착. 짐 풀기. 점심식사  - 2 : 00 Monastiraki 벙커시장 구경 및 옷 봤던 곳 둘러보기  - 5 : 00 숙소 귀가	- 10 : 00 체크아웃  - 12 : 00 공항으로 출발  - 2 : 30 비행기출발	- 11 : 45 인천 도착.

<일정 중에 바뀐 부분>

1/8 월요일 첫 날에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해 일정이 바꼈다.

12시부터의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 대사관 전화, 분실신고, 핸드폰 정지를 해결하고 나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안전한 신타그마에서 밥을 먹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녹음을 하였다.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방문은 1/13 토요일 오후 일정으로 바꿨다.

1/11 목요일에 피레우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일정보다 피레우스 항구 장소를 선택한 본래 이유를 더 생각하여 고고학 박물관보다는 플라톤 국가 처음 문장에서 나오는 피레우스 항구를 직접 가서 느껴보았다.

첫 날 빼고는 무사하게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고 일정을 소화해낸 뿐만 아니라 여유 시간을 가지며 책 내용(8가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장소들>

1.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그리스의 고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아크로폴리스의 유적과 함께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뿐 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들이 준비 하는 그리스 최대의 박물관이다. 정말 큰 박물관 이여서 관람할 때 다리가 아팠다. 그래서 인지 곳곳에 의자가 많았다.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수천 년 전의 문명이 남겨 놓은 물건들을 돌아보면서 독특한 낭만을 느낄 수 있던 박물관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방문했던 곳인데 이미 그리스의 많은 곳들을 둘러보고 방문했기에 지루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감탄을 많이 했다. 아름다운 조명들이 작품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 2.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대표 얼굴이자 그리스 고대 유적의 하이라이트이다! 아크로폴리스 말 자체가 '높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이다. 언덕 전체 여기저기에 유적들이 있다.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작은 산을 등산하는 기분이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한눈에 잘 보이는 곳이다.



### 2-1. 디오니소스 극장

비수기이었기에 모든 유물들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에 들어 갈 수 없었고 복구 작업하는 분들이 계셨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오늘날 서양 극 예술의 탄생지이다. 디오니소스의 일생을 주제로 한 작품이 무대 뒤쪽에 있었지만 복구 작업을 하는 중 이어서 볼 수 없었다.





## 2-2.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디오니소스 극장을 지나 가파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이다. 그 크기와 아름다움은 정말 보자마자 압도당한다.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은 아티카의 대부호이자 로마의 귀족이었던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세상을 떠난 아내 레기나를 추모하며 세운 극장이다. 6000석의 규모의 실내 극장 이었지만 이민족의 침입으로 파손되었고 지금은 복원을 해서 원형 야외 극장으로 재탄생했다. 6~9월에 열리는 아테네 페스티벌 기간에는 각종 연극과 콘서트, 오페라, 그리스 고전 극 등의 상연 장소로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크기가 아쉽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페스티벌 기간에 가보고 싶다.



## 2-3. 볼르의 문

볼르의 문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통과되는 문이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 갈 수 있다. 나도 책이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볼르의 문은 로마 시대인 3세기 중반 헤롤리 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용 성벽의 일부로 지은 것이다. 지금은 입구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도 유물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볼르의 문을 직접적으로 찍지 못했지만 가는 길을 찍었다. 관광객이 오전을 지나 오후가 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 2-4. 에레크테이온 신전

이 신전은 아테나 여신에 의해 양육 되었다는 고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레크테우스를 위해 지은 신전이다. 이 신전의 유명한 트레이드마크는 "이오니아풍 6명의 여인상 기둥"이다. 여담으로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지어진 장소에 대한 신화가 있다.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놓고 아테나 여신과 포세이돈이 경쟁을 벌일 때, 아테나 여신은 이곳에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바닥을 내리쳐 우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심은 나무는 아니지만 아테나 여신의 상징수인 '아테나의 올리브 나무'가 신전 옆에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내가 봤던 신전 중에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신전이다.



#### 2-5.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서양 문명의 발원지인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자 고대 아테네의 영광을 상징하는 신전이다.

아테네의 수호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쳐진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에 사용될 정도로 서양 문명사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구조와 빼어나게 아름다운 조형미 덕분에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찬송을 받아오고있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정말 넋을 잃고 보게 된다. 특히 나는 파르테논 신전 위에 조각상이 가장 인상깊었다. 동물과 사람 조각상 이었는데 디테일에 감탄했다!





#### 2-6. 프로필라이온

프로필라이온은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갈 때 필수적으로 지나는 정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오전 일찍 갔는데 그곳엔 건축 수업 중이던 교수님과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렇게 현장 체험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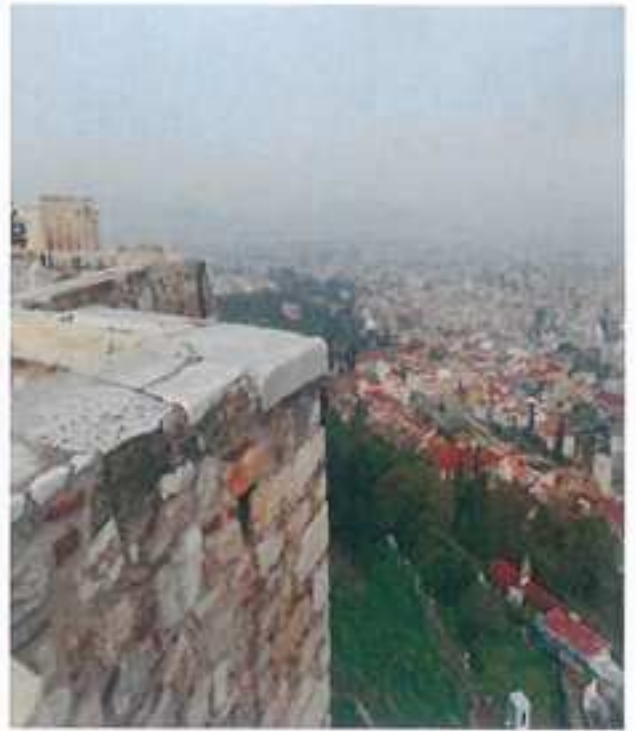


#### 2-7. 전망대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테이온 신전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전망대가 있다. 여기는 여행 방문의 증명사진을 찍는 곳으로 사랑 받는 장소라고 한다. 나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

전망대 아래를 보면 아테네 지붕들이 보이는데 다 예쁘게 빨간 지붕으로 통일돼서 아름다웠다.





## 2-8. 고대 아고라

고대 아고라는 아크로폴리스와 함께 서양 문명사의 첫 페이지가 시작된 장소이다. 현대 그리스어에서 '아고라'는 시장을 뜻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도시에서 아고라는 정치, 종교, 문화적 시설이 집중한 시민 생활의 공공 광장이었다.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했다. 내가 배운 플라톤 국가에 나온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많은 대화와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스 오면 꼭 한 번 방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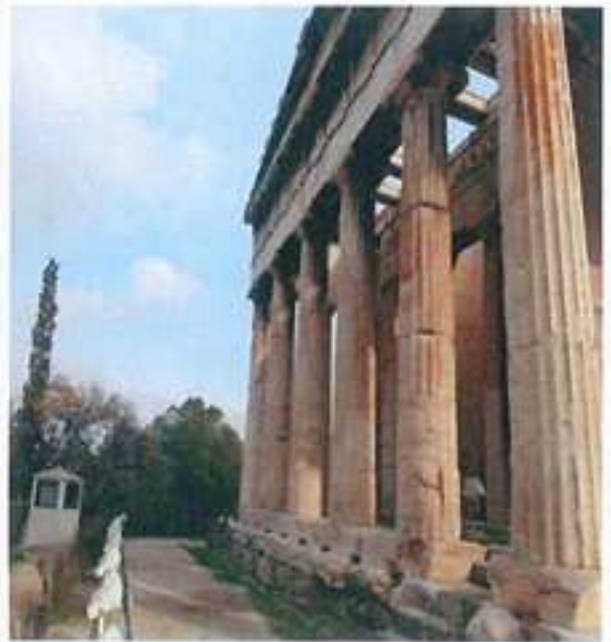


싶었던 곳이었다.



#### 2-9. 헤파이스토스 신전

고대 아고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다. 그리스에 있는 신전 중에서는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라 한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하면서 발견된 유물들이 대장간과 관련된 물품이어서 제우스의 아들이자, 불과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바쳐진 신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전에 도착했을 때 마침 햇빛이 밝아 빛을 받은 신전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 3.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은 보자마자 역시 신들 중 최고로 섬겼던 신이란 게 느껴졌다. 정말 높이가 아주 높았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높을 것이다.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규모라는 걸 책에서 보았다.





#### 4.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유물들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 뼈대만 보았다면 여기선 출토된 진짜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총 3층이다(유럽은 0층부터 있는 것을 잊지말자.) 핵심 중간 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안됐지만 다른 곳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고대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양, 재질도 보이고 아크로폴리스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니케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정말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의 포인트는 입구 쪽에 발굴된 고대 주택가의 모습을 훼손 시키지 않고 가운데를 뚫고 바닥을 유리로 해서 볼 수 있게 한 게 인상깊었다. 또한 바로 옆에 예쁜 도서관 건물이 있다.





## 5. 델피 성역

델피 성역은 신화와 전설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야 할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그리스 최고의 신화 성지로 손꼽혔던 델피에서는 아폴론 신전의 신화를 받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들었다. 델피에 갔을 때 성역 말고 놀라웠던 점은 산 속으로 깊이 계속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높이 가다가 작은 산 마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웠고 아름다웠다. 신성한 기운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산에는 안개가 있었고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델피 성역은 신화와 신성한 분위기를 정말 잘 갖고 있는 곳이다.



### 5-1. 아테네인의 보물 창고

이 보물 창고는 아테네가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에게 승리한 것을 감사하면서 아폴론 신에게 바친 보물창고이다. 저기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처음 보물 창고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 5-2. 아폴론 신전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장소였던 아폴론 신전은 델피 유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다. 현재에도 신성한 기운, 예사롭지 않는 기운으로 둘러싸인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고대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더 뿜냈을거라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도 그때에 기운이 잊혀지지 않는다.



### 5-3. 고대 극장

고대 극장은 그리스 시대에 음악 경연대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지금도 여름철이면 연극 공연이나 음악 연주회가 열리는 야외 공연 장소로 활용한다고 한다. 아테네에서 뿐만 아니라 산 마을인 델피에서까지 유물들을 잘 이용하고 많은 걸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 유물을 잘 보존한다고 느낀다.



#### 5-4. 스타디온

극장 위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델피 성역에서 가장 높은 장소인 고대 스타디온이 나타난다. 이 스타디온은 스포츠 경연이 열리던 장소였다. 스타디온을 처음 봤을 때 높은 성벽이 있어서 스포츠 경연 장소인지 몰랐다. 가장 끝으로 가니까 그때서야 스타디온이 보였던 모습이 기억난다.



#### 5-5. 신성한 길

신성한 길은 유적 입구에서 부터 언덕 위에 있는 아폴론 신전까지 신탁을 받기 위해 올라가던 길이다. 신성한 길 옆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유물들이 보였다.



## 6. 델피 고고학 박물관

델피 고고학 박물관은 원래 시간 관계 상 가지 않기로 했던 곳 이었는데 델피에서 짐을 잠시 잃어버려 찾기 위해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아 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 안은 사진을 찍으면 안되었기에 가는 길을 찍었다.



## 7. 피레우스 항구

플라톤 국가 첫 페이지에 나오는 피레우스 항구는 내가 그리스를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부분이다. 소크라테스가 축제를 감상하고 케팔로스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 상상의 나라를 펼쳤던 나는 두근거렸고 너무나 궁금했다. 실제로 가본 피레우스 항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낮에는 건물들이 아름답고 배가 아름다웠다면 밤에는 건물과 항구에서 나오는 조명, 불빛들이 아름다웠다. 나의 상상의 나라와는 다른 이미지였지만 그곳에서 고대의 그리스를 생각하며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가 만나는 장면과 대화를 나눴던 것을 생각해보았다.



### 8.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동상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의 왕이었다. 페르시아군과의 싸움인 테르모필레 전쟁을 이끌었다. 고대 그리스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 유물을 보러 온 스파르타의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였다. 크기는 어마어마 했다. 사진에는 담을 수 없는 크기였다. 그래도 담으려고 노력했다. 스파르타의 아고라 광장과 아르테미스 성역을 보러 가기 전 도로 가운데에 있다.



### 9. 스파르타 아고라 광장

스파르타에도 아고라 광장이 있다. 스파르타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지 사람들이 유물들을 관리 하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유물이 많다 보니 크게 보존할 만한 유물이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 같다.



## 10. 스파르타 고대 극장

스파르타 유물 중에 아테네와 같은 고대 극장이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없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까이서 유물을 본 게 가장 인상깊었다. 모든 돌들에 그리스어로 글이 적혀있고 극장이 생각보다 크고 비가 왔기에 다 둘러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 11. 스파르타 국립 박물관

숙소 앞이 바로 스파르타 국립 박물관이 있었다. 박물관에서는 고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유물들도 있었다. 스파르타 국립 박물관에서 느낀 건 조각상을 고대 사람들이 참 잘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겹치는 문양의 유물들이 있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 12. 플라카 지구

아크로폴리스와 신타그마 광장 사이에 펼쳐져 있는 시가지를 통틀어 '플라카'라고 부른다. 아테네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르게 되는 관광지이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찾으러 가다가 지도를 보지 않고 마음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오게 된 곳이 플라카 지구였다. 골목 골목이 아름다웠고 복잡한 곳은 복잡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낭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기념품도 여기서 많이 구매했다.



## 13. 모나스티라키 광장

모나스티라키 광장은 우연히 들어서게 된 곳이다. 고대 아고라가 아크로폴리스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걸어서 계속 찾아다니다가 플라카 지구를 먼저 만나게 되었다. 플라카는 거리에 상점, 카페, 음식점들이 놓여 있고 질서 있고 깨끗하고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유로워 보였다.





## 2. 세부 일정 (p.26-p.35)

※ 1월 8일

1. 09 : 00 - 아테네 도착.

공항 4~5번 게이트에서 신타그마 광장으로 가는 x95탐(50분) ... 공항버스 6€

신타그마 광장 지하철로 m2(메트로 2호선), aghios antonios(Άγιος Αντώνιος)행 오모니아 역 도착 (6분) ... 1.2€

Πλ. Καραϊσκάκη에서 Theodore Diligiannis 방면 북쪽으로 걸기(6분)

∴ 총 7.2€

2. 10 : 30 숙소 도착. 짐 풀기 및 쉬기.

숙소에서 오모니아 광장까지 걸기(14분)

3. 12 : 00. 오모니아 광장 근처에서 밥 먹기

오모니아 광장 근처에서 국립 고고학 박물관까지 걸기(10분)

4. 1 : 00 국립 고고학 박물관 방문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서 오모니아 역 근처 식당으로

6. 5 : 00 오모니아 광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

저녁식사 후 숙소로 복귀(10분)

### <1. Πλ. Καραϊσκάκη 역에서 숙소까지 경로(도보)>



### <2. 숙소에서 오모니아 광장까지 경로(도보)>



<3. 오모니아 광장에서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까지 경로(도보)>



※ 1월 9일

1. 7 : 00 기상 및 아크로폴리스로 출발  
숙소에서 아크로폴리스.(34분)
2. 8 : 00 아크로폴리스 통합권 구매, 아크로폴리스 입장  
아크로폴리스 언덕 둘러보기 - (시간이 나면 아테네의 아고라 - 헤파이토스 신전가기)
3. 12 : 00 점심식사, 제우스 신전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나와 점심식사. 아크로폴리스에서 제우스 신전까지 15분.
4. 2 : 00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제우스 신전에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까지 5분.
5. 3 : 00 근처 카페, 못 본 곳 한 번 더 돌기.  
소매치기 주의) 항상 돌이 다니고 지갑은 시야에 두기.
6. 5 : 00 저녁식사  
저녁식사 후,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옆 acropoli역에서 m2(메트로 2호선), aghios antonios(Άγιος Αντώνιος)행 오모니아 역 도착(15분)  
... 1.2€ + 아침에 숙소-라이시온 버스터미널로 출발하는 티켓(1.4€) 미리 사들 것.  
  
∴ 총 2.6 €
7. 6 : 00 숙소 귀가

<1. 숙소에서 아크로폴리스까지 경로(도보)>



<2. 아크로 폴리스에서 제우스 신전까지 경로(도보)>



<3. 제우스 신전에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까지 경로(도보)>



<4. acropoli역 위치>



※ 1월 10일

1. 7 : 00 체크 아웃

숙소에서 ΛΙΟΣΙΩΝ역 버스정류장까지 걷기(5분)

A10 or B10 타고 ΣΤ.ΥΠΕΑΡ/ΚΩΝ ΛΙΟΣΙΩΝ역에서 내리기(15분)

ΣΤ.ΥΠΕΑΡ/ΚΩΝ ΛΙΟΣΙΩΝ역에서 터미널 B까지 걷기(1분)

2. 7 : 30 델피로 출발

정류장 Bus Station Terminal B에서 델피 버스터미널 ... 16.4 €  
(2~3시간)

3. 09 : 30 ~ 10 : 00 델피 도착

\* 짐은 델피 버스터미널에서 보관.(2~3유로)

유적지 (시간이 부족할 시 아테나 신전에서 되돌아오기)

4. 1 : 30 아테네 출발

델피 버스터미널에서 정류장 Bus Station Terminal B ... 16.4 €  
(2~3시간)

5. 4 : 30 피레우스로 가기

터미널 B에서 버스정류장 ΠΡΑΚΤΟΡΕΙΑ까지 걷기(2분) ... 1.4€

024 or 719 or A10 or A11 or B10 or B11 or B12 or Γ10 타고 정류장 ΣΤΑΘΜΟΣ ΑΤΤΙΚΗΣ에서 내리기(6분)

Attiki역까지 걷기(1분)

Attiki역에서 m1호선(메트로 3호선) ΚΗΦΙΣΙΑ - ΠΕΙΡΑΙΑΣ행 지하철타고 Pireaus역까지 가기(22분)

Pireaus역에서 호텔까지 걷기(11분)

∴ 총 34.4 €

\* 걷는 데 길을 모르니 꼭 포켓 와이파이 켜서 확인하고 가기. 소매치기 조심. 낯선 사람에겐 길을 물어보지 맙시다.

6. 5 : 30 숙소 도착 및 짐 풀기.

숙소 : Piraeus Dream Hotel.

<1. 숙소에서 Bus Station Terminal B까지 경로(도보만)>

1-1.



1-2.



<2. Bus Station Terminal B에서 Piraeus Dream Hotel까지 경로(도보만)>

2-1.



2-2.



※ 1월 11일

1. 8 : 00 피레우스 고고학 박물관 가기

Piraeus Dream Hotel 숙소에서 Archaeological Museum of Piraeus로 걸어가기(10분)

2. 12 : 00 체크인 및 오모니아 역으로 감.

Piraeus Dream Hotel 숙소에서 버스 정류장 ΕΘΝ.ΑΝΤΙΣΤΑΣΕΩΣ으로 걷기(9분)

420번 버스타고 정류장 ΣΤ.ΥΠΕΡΑΣΤΙΚΩΝ ΛΕΩΦΟΡΕΙΩΝ까지 가기(36분) ... 1.2 €

KTEL Bus Station Kifissou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3. 1 : 15 스파르타로 가는 버스 타기

KTEL Bus Station Kifissou에서 K.T.E.L. Lakonias S.A. ... 21.4€

3시간 30분

4. 4 : 45 스파르타 도착. 짐 풀기. 저녁식사.

K.T.E.L Lakonias S.A. 정류장에서 숙소 LAKONIA HOTEL까지 가기(12분)

∴ 총 22.6 €

<1. 숙소 Piraeus Dream Hotel에서 Archaeological Museum of Piraeus까지 경로(도보)>



<2. 숙소 Piraeus Dream Hotel에서 버스 정류장 EON.ANTISTATAΣEΩΣ까지 경로(도보)>



<3. K.T.E.L Lakonias S.A. 정류장에서 숙소 LAKONIA HOTEL까지 경로(도보)>



※ 1월 12일

1. 9 : 00 기상 및 아침식사

2. 10 : 00 스파르타 유적지 (건기)

숙소

공 (약 18분)

스파르타 아고라 광장

↓ (약 20분)  
아르테미스 성역  
↓  
숙소 거리(약 15분)

3. 1 : 00 점심식사  
근처 식당
4. 2 : 00 스파르타 국립 박물관 관람  
카페 가기
- 5 : 00 숙소 귀가 및 저녁식사

<1. 숙소 LAKONIA HOTEL에서 스파르타 아고라 광장까지 경로(도보)>



<2. 스파르타 아고라 광장에서 아르테미스 성역(도보)>



<3. 아르테미스 성역에서 숙소까지 경로(도보)>





.. Lakonias S.A. 정류장까지 걷기(12분)

us Station Kifissou. ... 21.4 €

3시간 30분

3. 12 : 00 아테네 도착.

KTEL Bus Station Kifissou에서 ΣΤ.ΑΓ.ΑΝΤΩΝΙΟΣ역 까지 걷기(16분)

ΣΤ.ΑΓ.ΑΝΤΩΝΙΟΣ역에서 M2(메트로 2호선) ΣΤ.ΕΛΛΗΝΙΚΟ행 지하철 타고 Στ.Λαρίσης역에서 내리기(5분) ... 1.2 €

Στ.Λαρίσης역에서 쪽 숙소까지 내려오기

4. 12 : 30 숙소 도착. 짐 풀기, 점심식사  
쪽 쉬기.

∴ 총 22.6 €

5. 2 : 00 Monastiraki 벵룩시장 구경 및 못 봤던 곳 둘러보기  
숙소에서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23분.

6. 5 : 00 숙소 귀가

<1. KTEL Bus Station Kifissou에서 ΣΤ.ΑΓ.ΑΝΤΩΝΙΟΣ역까지 경로(도보)>





<2. Στ.Λαρίσης역에서 숙소 Hotel Neos Olympus까지 경로(도보)>

<3. 숙소 Hotel Neos Olympus에서 Monastiraki 벵룩시장까지 경로(도보)>



※ 1월 14일

1. 10 : 00 체크인

2. 12 : 00 공항으로 출발

신타그마 광장에서 ΑΦΕΤΗΡΙΑ까지 걸기

X95 타고 공항까지 가기(1시간 6분) ... 6€

정류장 ΚΤΙΡΙΟ ΑΝΑΧΩΡΗΣΕΩΝ에서 공항 도착.

3. 2 : 30 비행기출발

<1. 숙소 Hotel Neos Olympus에서 신타그마 광장까지 경로(도보)>



<2. 신타그마 광장에서 ΑΦΕΤΗΡΙΑ까지 경로(도보)>



### 3. 비용

명목	세부명	비용(€/£)	
교통비	지하철 및 버스	6.2	
	아테네 - 델피(왕복)	32.8	
	공항버스(왕복)	12.0	
	아테네 - 스파르타(왕복)	42.8	
	합계	83.8	
식비		150€/35£	
입장료	아크로 폴리스	15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3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5	
	피레우스 고고학 박물관	3	
	스파르타 고고학 박물관	1	
	델피 유적지	6	
	합계	33	
숙소비		45	
비상금	여권 분실 시	단수 여권	13.5
		여행 증명서	6.3
		합계	19.8
	비상금	30	
	합계	49.8	
기타(짐 보관비)		2~3	
합계		326.6~327.6€/35£	
환전		약 420,052.82 원	

### 4. 필요한 회화

- 네/아니오

Nai (네) /Oχι (오하)  
스)

\*안녕하세요?

Καλημερα (칼리메라) - 아침 / Χαιρετε (헤레테) - 점심

Καλησπερα (칼리스페라) - 저녁

\*고맙습니다

Σας ευχαριστω (사스 에파리스토)/Ευχαριστω. (에프하리스토)

\*헤어질 때

Αντιο (안디오)

\*실례합니다.

Συγγνωμη (시노미)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Που είναι οι τουαλετες (푸이 네이투알레테)

\*얼마입니까?

Ποσο κανει (포소 카니)

도와주세요!	Βοήθεια! βοι띠야!
영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Μιλαει κανεις εδω αγγλικά, 밀라이 카네스 예도 앙글리카 ?
모르겠어요.	Δεν καταλαβαινω. 덴 카탈라베노

### 3. 도전 과제의 성과

- 여가지 주제에 대한 녹음을 했다.
- 나의 합체성을 찾았다.
- 책의 내용과 지리 탐구가 일치 되는 경험을 했다.

### 4. 자기 평가

①여행 중에 했던 일기 하나 제출. (그리스 지리 탐구 지기 전/후 비교)

②일기 : 2018.01.11 목. 여행 5일차 비 오는 날 스파르타 가는 버스 안에서.

유사 도전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나누면서 학생에 대한 마음이 더 열려졌다.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 그 답답한 부분도 나의 초급형, 초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과 이렇게 잘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이 좋다. 정말 좋다! 순간 순간 비박. 마음이 스스로 공해지고 불안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날 성장 시키고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느낀다.

그리스라는 낯선 환경이 어쩌면 조국의 보호막이던 울타리에 한국에서의 낯선 곳도 낯선 곳이 아니게 만들었고 진짜 낯선 환경. 처음 보는 곳.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은 나에게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더 하는 사람인지.

내가 부족할 게 많아 학생을 힘들게 한 게 많아 미안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의 기준, 관점을 바라보게 변환된 게 감사했다.

온전히 상황에 집중하기 4일차부터 진짜 내가 어곳에 와서 성장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울음을 해본다.

스파르타를 향해가는 지금 여정도 이전 어느 정도 행복하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실례고 도전적이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들로 묻고 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여행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여행을 찾자.

진짜 인문지리 탐구를 앞으로써 작게만 생각했던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크게 볼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웅장함과 거대함을 느끼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크게 느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큰 프로젝트를 나 혼자 했으면 큰일 났겠구나를 느끼고 지금 나와 있는 학생과 편집자님께 감사하다.(물론 지도교수님이 있기에 첫 디딤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둘이었기에 성장할 수 있는 인문지리 탐구였다. 지리 탐구는 지금은 나에게 큰 의미의 여행이다. 오해를 포함한 여행 말이다. 나만의 성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성장도 함께 보는 게 정말 놀라웠고 대단했다.

나는 모든 비난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

당신은 모든 비난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모든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 하는데 기준이 있을까?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면 희생일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면 희생인가.

난 내가 살아오는 때 순간에 인간관계를 위해, 사람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 나의 최선을 알아주지 않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뉘앙스, 느낌을 줄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비난을 주는 사람은 그냥 내가 미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그냥 아직 더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고 그만 것이다. 자신의 틀에 갇혀 경험하는 건 성장 할 수 없다. 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된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날 만들어야 한다. 그 틀은 영원 할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사람이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사실 두렵다. 여행 5일치가 되고 길을 향해 갈수록,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스 가 더 그리울거봐... 내가 여기서 느꼈던 여유로움, 편안함, "경과가 어때도 괜찮아, 과정에서 볼 배웠는자가 더 중요하잖아" 등을 잃어버릴까봐...

확실한 건... 도착하면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다. 여기서 다른 삶은 더 이상 한국에서 배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원지 모를 미묘한 마음?가치관?이 달라질 것 같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를 거 같다는 느낌은 100% 막 온다.

아 할려, 확신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갈 수 있다는...간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르고 만들어가는 싶어 뭘 것이다. 날 사랑하는 것 말이다.



## <그리스 지리탐구 하기 전/후 비교>

### <그리스 가기 전 탐방 계획서 중 : 왜 그리스인가>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고 내 주변을 둘러싼 공부, 근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다. 이러한 상태로는 내기 인문지리 탐구 책으로 선정인 오메로스(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헤로도토스의 역사,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들의 배경인 그리스로 가서 그 장소에서 이 책들 속에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다. 여행이라는 기회를 통해 더 '확실하고 실증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만들 때 사진들도 넣어야 해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리스 장소를 사진을 찍어 넣을 것이다.

나에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21세기 20대 청년이 겪는 현실', '내가 갖고 있는 내만의 이야기'(장시영이라는 인간이 겪는 현실)들을 클라시카 전공 책들과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대감이 있는 책 내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전과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을 벗어나 (상대적으로)간접적인 새로운 그리스 환경을 접하면 도전하기 목표에만 집중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클라시카 안의 읽는 분야, 역사, 철학에 대표적인 인은 책들을 읽고 그 책을 속 장소를 직접 가보고, 원문도서를 1차원적으로 읽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리 탐구'라는 자발적 실천을 통해 원문도서를 우리 삶에 녹여 둘 수 있게 공부시킬 수 있다는 것 직접 경험할 수 있다.

### <그리스를 다녀 온 후 나에게 도전경험은?>

도전경험으로 얻은 키워드를 말하면 변화된 4가지 요소, 기회, 더 넓은 세계이다.

나의 클라시카 인문지리 탐구 책 출판이란 도전 경험은 걱정, 두려움, 게으름, 낙담함과 맞서싸워 희망, 진보, 용감, 감인함을 얻었다.

걱정을 뛰어넘어 희망으로 만들고 두려움과 싸워 앞으로 나아갔고 게으름을 이겨 시간의 부지는 다른 부분들의 놓여진 문제들을 융합하고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낙담했던 모습을 벗어나 나의 대한 확신, 믿음으로 감인함을 얻었다.

클라시카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책이나 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주었다.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요약본을 보는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원문을 읽고 분석하고 질문하고 문제를 찾는 과정 속에서 울타리 밖에 제3자가 남 역지로 허내는 것이 아닌 내 자아가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야만 여건 너무나 부지한 곳이어야라는 외침을 하면서 깨내주었다. 늘 학문의 중요성은 되새기고 알고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이전까지 말한 학문의 중요성은 한 것이 아니었다. 학문은 어쩌면 공부와 경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학문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되는 권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받을 때도 있다. 그럴 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다. 도전 경험의 기회는 나의 회복 탄력성을 더욱 높여줬다. 앞으로는 계속 놓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와 매개자 역할이 되고싶다.

마지막 키워드인 '더 넓은 세계'는 내가 그리스를 직접 가봄으로써 피부로 직접 맞닿아야만 느낄 수 있었던 한국에서 벗어난 세계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읽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감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다. 난 유럽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식의 습득 양으로 얻을 수 없는 감각이다. 지리 탐구를 하는 이 도전 공일은 한국에서 침착고 있던 기존의 감각을 살아나게 한다.

이 감각은 강등과 부딪힌 스스로의 해결방법. 스키듯이 지나가 버린 생각들의 길이 있는 고뇌 그리고 그 고뇌 안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 마지막으로 고전에서 읽나는 영물, 시간들이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공명할 수 있는 감각. 난 그리스 환경을 접하면서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이 새로운 감각이 무엇인지 지금은 문장으로 정확히 적을 순 없지만 끊임없이 이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다.

## 5. 최종 결과물

### • 도서개발(책 출판)

최종 결과물은 청년 대학생의 눈높이에 어울리고 공감과 연대가 있는 도서 개발을 목표로 계속 출판사 편집자님과 작업하고 있다. 특히 책 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책 출판 계획은 ①방학 중에 특히 책 작업을 다 끝내고 ②3월부터 정·식 과정을 하면서 ③9월 가을을 출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도전 하기 안에서 완성된 부분은 ①고선영님 텍스트 읽기와 분석, ②그리스에서 녹음한 8가지 주제에 대한 대화, ③책에 넣을 사진들이다.

지금 낼 수 있는 결과물은 결과 보고서와 그리스에서 찍은 활동사진들이다.

\*이정리민 광고를 제출 하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스 활동 사진들>









<1차 참고문헌>

1.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 권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6.
2. 헤로도토스 『역사』, 권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09.
3. 플라톤, 『국가』, 박종원 역, 서광사, 2011.
4. 책 스나이더, 300, 미국, 2007.
5. 울프강 페테겐, 트로이 전쟁, 독일, 2004.

<2차 참고문헌>

1. 김은서 (2017), 플라톤의 『모aget시아』의 시점에서 바라본 『일리아스』의 전사, 서양고전학연구, 56(1), 1-33.
2. 갈남두 (2014), 플라톤의 정치철학에서 정치적 지식의 성격(1), 서양고전학연구, 53, 25-45.
3. 이태우 (2013),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 서양고전학연구, 50, 5-32.
4. 서영식 (2013), 플라톤 법치주의 이념의 윤리적 토대, 철학논총, 71, 171-185.
5. 유재원 (2007), 만화풍의 오리엔탈리즘, 유펙션, 50-53.
6. 갈봉철 (2017),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서양고대사연구, 32, 35-70.
7. 김병철 (2011), 역사학 고전 다시읽기 : 지중해세계 최초의 역사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109권 0호, 319-340.
8. 김현 (2013), 호메로스(Homer)의 시 세계 고찰 : 『일리아스(Iliad)』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학회, <고전번역학연구>, 22권 1호, 5-46.
9. 이승현 (2017-2018), 그리스 여태초, 캐세오라, 산토리니, 100배 즐기기, 알에이치코리아.
10. 보드먼, 존 (2003), 그리스 미술, 시공사.